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변화

전라남도 목포공공도서관



양상원 목포공공도서관장

복합매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 요구에 맞는 전시 및 열람시설, 토론공간, 정보서비스 공간을 구비하여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목포공공도서관은 친근한 도서관, 머물고 싶은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이용자의 제각각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도 말부터 2017년 현재까지 도서관의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칩작하고 어두웠던 로비를 밝고 화사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테마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등 상설 전시와 음악과 의외에도 휴식, 만남의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 새로운 환경을 대비하다: 사람

시설적인 면 이외에도 도서관은 결국 사람을 위한 도서관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도서관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은 개인과 공동체의 기억유산을 만들고 보존하며, 사람을 보다 의미 있는 주제로 만들어, 공공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016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자서전 써드리기'는 참가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 측면에서 대화를 통해 기억 유산을 정리하고 그 발자취를 남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청소년들이 부모, 조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가족들이 살아온 과정을 자서전 형태로 직접 기록하여 발간한 '평범한 듯 특별한' 자서전은 세대간 소통과 이해를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다.

2017년에는 전남교육 역량과제인 독사·토론수업 활성화에 맞추어 독사토론 및 글쓰기 프로그램인 '학교로 찾아가는 독사토론', '학교와 함께하는 독사연계 글쓰기', '책 자서전 써드리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목포공공도서관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독서진흥 사업 및 평생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 새로운 환경을 대비하다: 시설

우선 시설적인 면에서 도서관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이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통합형 복합서비스 시설(리키비움, Larchivium)로의 변화를 받아들이야 한다. 다양한



자 중심의 맞춤형 지식정보 자료확충은 물론이고, 목포 지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 지정되어 학교 독사·토론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아독서프로그램', '독서교실', '영화인문학', '테마도서관 전시회' 등 다양한 독사토론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독서회 멘토'와 '도서관 사서 직업체험' 그리고 '청소년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책 읽기를 통한 미래설계,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 가정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군인 등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독서진흥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 사람을 위한 도서관: 평생교육

현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해에도 172개 강좌에 3,975명의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학기

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소규모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교육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목포·신안지역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에 도움이 될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다.

특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프로그램은 '2개의 이세들'을 꿈꾸는 도서지역 소규모학교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요리, 공예, 드론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큰 호응으로 올해 발금초등학교 등 7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또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 및 지역사회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인성과정인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10대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며 단계별 1년, 3개월의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국어, 수

학, 영어, 역사 등의 교과교육과 시화전, 운동회, 체험학습 등의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져, 학습자들이 글자를 배우는 것을 넘어 배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희망자들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활용하고자 구성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94명의 봉사단원들이 웃음치료 등 101개 프로그램으로 전남지역 복지기관, 학교, 도서관 등 48개 기관에서 활동 중이다.

■ 도서관: 미래를 담은 그릇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으로,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도서관은 과거에서 미래까지 인류의 지식을 전달하는 배움터이자 터전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하고, 어떤 정보라도 수월히 보존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면 이를 통해 목포공공도서관은 미래를 담은 큰 그릇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